

전남대병원 새 병원 예타 조사 막바지...통과 여부 '촉각'

尹대통령 최근 부산대병원서 병동 신축 7천억 지원 약속 전대병원 기대 ↑...정신 병원장 "균형 발전 위해 꼭 필요"

전남대학교병원의 새병원 건립사업인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신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과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5일 부산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의료 개혁의 핵심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의 격차 해소"라며 병동 신축 비용 전액인 7천억원을 지원키로 약속함에 따라 전남대병원의 새병원 예타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사업계획서 변경 등 예타 통과 '사력' 25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신축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예타 조사는 지난해 2월 시작돼 총 4차례 질의 과정이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전남대병원은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는 등 예타 조사 통과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당초 전남대병원은 2022년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1천300병상 ▲연면적 27만㎡(8만1천675평) ▲사업비 1조2천146억원을 명시했다. 이후 기재부의 예타 조사를 맡고 있는 KDI(한국개발연구원)와의 의견 조율을 거쳐 최종 사업계획서 내용을 ▲1천70병상 ▲연면적 24만㎡(7만2천600평) ▲사업비 1조1천438억원으로 변경했다. 병상 수를 줄이는 대신 임상실습·수련교육 등 교육시설과 기초 및 중개 연구·바이오헬스산업 등 연구시설 등을 대폭 늘렸다. ◇노후화로 연수선비만 300억 전남대병원의 1동은 46년, 2동은 무

려 55년이 넘는 등 기존 건물의 평균 사용 기간이 45년 이상이다. 1동의 경우 전국 국립대병원의 주요 진료동 중 가장 오래 됐다. 이에 따라 매년 시설 관련 수선비 및 리모델링 예산으로 300억원이 편성되고 있어 신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남대병원은 외래와 검사실, 병동과 수술실 등 모든 의료 기능이 동별로 분산돼 있어 이동거리가 길고 복잡한 동선으로 환자들의 불편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건강 수준 격차는 지속되고 있으며 각종 사망률 지표에서도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인구 10만명 당 치료 가능 사망률(2019

년 기준)은 서울이 36.36명에 불과하지만 광주 39.12명, 전남은 44.08명에 달하며, 뇌혈관질환 사망률(2019년 기준) 역시 서울은 33.6명, 광주 34.9명, 전남은 무려 71.2명에 이른다. ◇'지역거점병원, 빅5수준 육성' 기대 정부는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난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인 ▲의료 인력 확충 ▲지역 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지역거점병원을 빅5(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수준으로 키운다고 발표했다. 특히 국립대병원 필수의료의 중추적

인 육성 방안으로 ▲규제 완화, 기부금품 모집 허용 ▲필수의료 분야 중심 교수 정원 대폭 확대 ▲인건비 관련 제도 개선 ▲노후시설·장비 개선, 인프라 첨단화 국가 지원 확대 등을 마련했다. 전남대병원은 '노후시설·장비 개선, 인프라 첨단화 국가 지원'이라는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만큼 새병원 건립에 따른 정부 지원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신 전남대병원장은 "새 병원 건립은 수도권과 의료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서울, 부산, 광주가 3개 축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예타 통과가 꼭 이뤄질지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수회기자



25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환영행사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당선인, 5개 구청장 등이 시정현안자료를 전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애리기자

광주시,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원팀 협력'

市·시의회·시교육청 공동 초청 행사...AI 2단계 등 현안 29건 건의
광주시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시의회, 광주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제22대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행사를 열어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진욱(동남갑)·안도걸(동남을)·조인철(서구갑)·양부남(서구을)·정준호(북구갑)·전진숙(북구을)·박균택(광산갑) 국회의원 당선자와 강기정 시장, 정무창 시의회 의장과 시의회, 이정선 시교육감,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

장, 공직자 등이 참석해 제22대 국회의 출발을 응원했다. 재선에 성공한 민형배 의원(광산을)은 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날 행사는 제22대 국회의 상징하는 숫자 22와 인연이 있는 광주시·시의회·교육청·자치구 공직자들이 당선자에게 전하는 축하와 희망 메시지를 담은 동영상으로 시작했다. 강 시장과 이 교육감은 당선자들에게 광주시와 교육청의 주요 현안 건의 자료를 전달했다. 광주시는 인공지능(AI)·미래차 산

업,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사업 등 총 12건의 주요 현안과 내년 국비 사업 17건을 건의했다. 특히 AI 2단계 사업 예타 면제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 등에 광주지역 당선자 모두가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청사 전환 배치, 광산교육지원청 원상 회복, 공립대안학교 설립, 산업 맞춤형 직업 특성화 특수학교 설립 등 주요 현안 6건을 전달하며 광주의 아이들이 세계로 나아가는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당선자의 응원과 지지를 부탁했다. /박선강기자

道, 여수 국회의원 당선자에 현안 건의

전라선 고속철도 30분 이상 단축·COP33 등 협력 요청

전남도가 여수지역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를 만나 전라선 고속철도 30분 이상 단축 및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등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찬균 동부지역본부장은 주철현(여수시갑)·조계원(여수시을) 당선자를 만나 축하인사와 함께 전라선 고속철도 30분 이상 단축,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대한민국 유치 표명 및 남해안·남중권 선지정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전남도는 전라선 고속철도의 경우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사업계획에 용산에서 여수까지 소요시간이 2시간44분에서 겨우 10분 단축된 2시간34분으로 돼 있는 만큼 국가적 생산성 제고와 국

가균형발전 매개체 기능을 발휘하도록 30분 이상 단축이 절실한 상황임을 설명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전남·경남 남해안 남중권 12개 시·군 공동 유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마이신산업 활성화, 대한민국의 기후 위기 대응 선도국가 도약 계기 마련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국제행사다. 이에 대해 두 당선자는 "동부권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30분 이상 단축되도록 힘을 모으고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전남도, 시·군과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재정기자

나주에 푸드테크 연구센터 들어선다

농식품부 공모 선정...105억 투입 2026년까지 조성

전남도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에서 식품업사이클링 분야 대상지로 나주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푸드테크는 식품산업에 관련 산업을 접목해 신시장을 개척하는 기술을 통칭한다. 식품업사이클링 연구지원센터

는 식품 산업 연관 기관이 다수 위치한 나주 산업단지내 입주 기업 사무실, 시제품 제작 및 실증 공간 등을 갖춘 시설로 총사업비 105억원 예산을 들여 2026년까지 조성하고 관련 전문성을 갖춘 전남대학교(푸드테크학과)에서 운영에 참여할 계획이다. /양시원기자

2024 광주·전남 관광아카데미 원우 모집

6월 5일 개강 | 특강 5회 · 2박3일 선도 관광지 견학

광주·전남지역자치단체의 관광 관련 업무 담당자 및 관광산업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관광아카데미는 실무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교육 과정으로 이론 및 국내 관광 선도지역 견학 등 현장 학습 위주로 진행됩니다. 광주매일신문이 개설한 '광주·전남 관광아카데미'에서 전문지식을 통해 관광 산업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의 밝은 미래를 여는 주역이 되십시오. 광주·전남 자치단체와 민간축제위원회, 행사 기획사, 관광에 관심있는 시·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모집인원** 50명 안팎
- 교육기간** 2024년 6월 5일 개강, 6월 12일-14일 현장학습(여수·통영), 6월 20일 종강
- 지원자격** 광주·전남 자치단체 관광 관련 공직자, 이벤트 기획사 임직원 및 관광산업에 관심이 있는 시·도민
- 강의방식** 전문가 특강 5회 / 현장학습(2박3일, 여수·통영)
- 수강료** 250만원(현장학습비 포함)
- 모집기간** 2024년 5월 31일까지
- 문의** 광주매일신문TV본부 062) 650-2024